**<컨셉 대본>**

**S#6 놀이터(오후)**

한적한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는 정민과 아이.

정민: 너가 붕어빵이라고?

아이: 그래 나 붕어빵이라고! 붕어빵 처음 봐?

정민: (혼잣말로) 너 같은 붕어빵은 처음 본다.

정민은 붕어빵을 벤치 옆자리에 내려놓자, 아이는 몸을 떨며 추워한다.

아이: (몸을 떨며) 으… 추워!

정민은 붕어빵 위에 핫팩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겉옷을 벗어 무릎에 덮어준다.

아이: 아~ 따뜻해~.

정민은 아이를 귀엽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쳐다본다.

아이: 아무튼 나 부탁이 있어!

정민: 뭔데?

아이: 바다에 가고 싶어. 그게 내 꿈이야! 내가 최초로 바다에 가는 붕어인거지!

정민: 너 붕어빵이라며? 그리고, 바다는 둘째 쳐도, 물에 들어가면 녹는데?

아이: 그러니까 네 도움이 필요한거야!

정민: 붕어빵이 바다에 가서 뭐하게?

아이: 재미있잖아!

정민: (어이가 없는 표정으로)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야?

아이: 내 꿈 무시하지마! 그럼 넌 얼마나 대단한 꿈을 꾸길래?!

정민: 나는.....

정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조금 머뭇거리다 한숨을 쉰다.

정민: 한번 가보자 그럼.

아이: 예~!